

실적 잔치에도 힘 못 쓰는 반도체주… 주주환원이 반등 열쇠

삼성전·하이닉스 실적 185조 전망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역주행
업황 전망·추가 주주환원 분수령

국내 증시가 급락 이후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기대가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적이 반등 이끄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오는 28일, 29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 규모는 1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제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76조원대의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 자체가 아닌 주가에 미칠 영향에 쏠린다. 실적 개선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과나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적 발표만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실적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42% 떨어진 26만2000원에 장을



코스피가 7000선에서 5000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둘러싼 우려와 저평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마쳤으며, SK하이닉스도 2.44% 떨어진 168만1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6월 고점 대비로는 삼성전자가 36만원대에서 21만원대로, SK하이닉스는 291만원대에서 12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은 반도체 대형주의 이익 개선이 실제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실적 호조와 함께 향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추가 주주환원책이 제시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나 보수적인 업황 전망이 나올 경우,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높은 성장성으로 용인됐던 대규모 투자가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통해 정당화돼야 하는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

번 실적시즌의 대응 난이도는 지난 2분기에 비해 높을 것”이라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DRAM)의 수요 및 가격 전망, 향후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급 변화 등에 대한 컨퍼런스콜, 그에 따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가 중요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AI 투자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1만2000에서 9000으로 낮췄다. 다만 현재 주가에는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까지 반영돼 있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여전히 높다는 평가도 내렸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현재 코스피 수준 대비 60%가 넘는 상승 여력을 제시한 것이다.

◆자사주 매입 종료에 수급 공백 우려…삼성·하이닉스 추가 환원책 주목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주주환원 계획’ 여부다. 두 종목에 대한 하반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51조5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순매도 금액(60조원)에 86%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조원,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던 매수 수요도 일단락되고 있다. 실적 호조가 신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 공백이 증시 회복의 걸림돌로 남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 연구원은 “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로 국내 증시 수급이 얹어진 측면도 있는 만큼, 이번 실적에서는 이익 신뢰성 회복과 추가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화 여부가 주가 및 수급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환원 재원으로 90조~11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 30조원은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활용하고, 나머지 60조~80조원은 내년 1월 실적 확정 이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법)상 10% 한도에 가까워 자사주 소각을 통한 환원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현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지가 관심사다. 올해로 2024~2026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환원하는 기존 정책이 마무리되는 만큼 중장기 주주환원 기조의 변화 여부도 살펴볼 대목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3개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을 1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금배당 70조~80조원과 자사주 소각 30조~40조원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웃도는 환원이 가능하며, 기존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환원 규모는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계기로 추가 주주환원 여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완료했으며, 확보한 2407만주(발행주식의 약 3.3%)는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2026~2028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추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다. SK증권은 해당 주주환원 정책이 적용될 경우 시가총액 대비 주주환원 규모가 2027년 11%, 2028년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카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유입된 자금을 특별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실적설명회에서 기존 예상치를 넘어서는 강화된 주주환원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솔리다임 기업공개(IPO) 철하는 기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주주환원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점검

이찬진 금감원장, 공정성 검증 지시
하나금융·NH농협, CEO 선임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확인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부원장 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후보군 선정·검증·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간 이 원장은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 승계절차의 불투명성, 이사회 실질적 견제기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또 이 원장은 승계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배구조 개선방안 취지와 모범관행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은 금융지주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실제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은행장 등 13개 자회사의 CEO 후보 쏟리스트를 확정한다. 지난달 승계절차를 개시한 NH농협금융지주도 오는 28일 자회사 CEO 후보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자산운용, 국내 운용사 최초 ICGN 가입

40개국 300개 기관 참여
글로벌 수탁자책임 강화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CGN은 1995년 설립된 기관투자자 중심의 국제 협의체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정책 제언, 네트워킹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 300여 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운용·관리 자산 규모는 100조달러를 웃돈다. 특히 ICGN이 제정한 ‘글로벌 지배구조 원칙(GGP)’과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GSP)’은 각국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기업지배구조 및 수탁자책임 관련 기준을 마련할 때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관련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앞으로 ICGN 회원사 전용 정책 워킹그룹과 국제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주요 지배구조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모범 관행과 정책 동향을 의결권 행사 기준, 투자대상기업 관여활동 및 수탁자책임 체계 전반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자산운용은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ESG 투자와 수탁자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신하은 기자

에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이봄’ 개통

내년 1월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시작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 전자투표와 주주총회 당일 온라인 의결권 행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전자의결권 플랫폼 ‘eVOP(이봄)’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 ‘K-VOTE’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사전 전자투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로 범위를 넓힌다.

이봄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진행되는 사전 전자투표부터 주총 당일 전자총회장 투표, 현장 주총에서의 온라인 투표까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에탁원이 운영해 온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에 전자주주총회 기능을 결합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

을 행사하는 서비스다. 여러 기업의 주총 일정이 겹치더라도 각 기업의 안전에 투표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기능이다.

에탁원은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2021년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220개 기관투자자가 에탁원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새 플랫폼은 영상 연결과 주주의 음성 질의·발언 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인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도 갖췄다. 본인 인증에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3종의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메리츠증권, AI 주식 분석·자동매매 지원

‘OPEN API’ 서비스 출시

메리츠증권은 26일 인공지능(AI)과 대화하며 국내의 주식 시세와 보유자산을 조회하고 주식 매매 주문도 요청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투자 조건을 반영한 주식 분석·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고객은 AI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와 등락률을 비교해줘’, 내

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평가금액을 정리해줘’라고 요청해 국내외 주식 시세와 자산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메리츠증권의 ‘OPEN API’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술을 통해 구현된다. OPEN API는 증권사의 시세·계좌 정보와 주문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서비스이며, MCP는 AI가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신하은 기자